눈 밝은 선지식 '간화선'을 이야기하다

6월 23일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담론' 프로그램서
진제 종정 ·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 체계 · 원리 설파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므로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해야 한다. 의심이 크면 깨달음이 크고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촬구를 들고 일단 의심이 일어나면, 일념만년으로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공부는 시작하자마자 행주와 어묵동정 가운데 24시간을 철석같이 촬구 의심만을 잡아들어서 한 생각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이 시대의 명안종사(明眼宗師)에게 간화선 수행의 요체를 듣는 법석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8일에 걸쳐 동국대 서울캠퍼스 및 인제 백담사에서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려 간화선을 공부하는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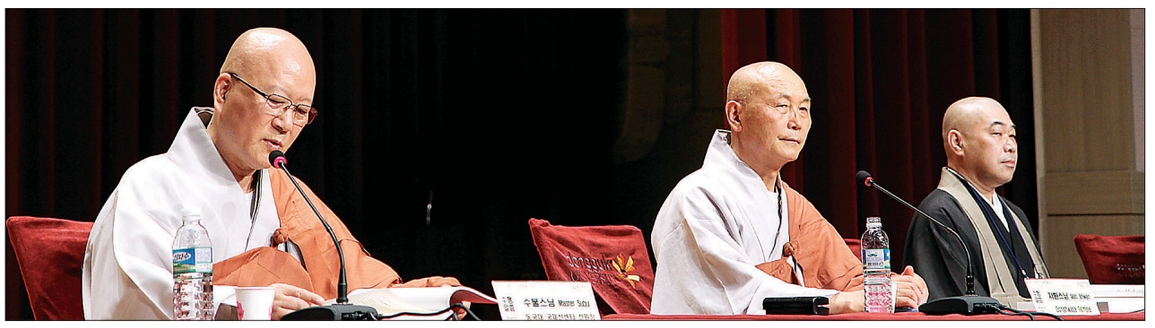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2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간화선 담론'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간화선법과 수불 스님의 간화선법, 일본 임제종의 야스나가 소도 스님의 일본 간화선 수행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법석이었다.

진제 스님은 동화사 유나 지환 스님이 대독한 '간화선 수행체계'를 통해 간화선을 어떻게, 왜 수행해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우선적으로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기본 요건은 선지식과 나 자신 그리고 화두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에게서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라며 "수행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서원이 없고, 서원이 없으면 정진력이 약해지고 퇴굴심이 생겨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바른 지도를 받아 온전히 행해서 화두가 순일하고 일념이 계속되면 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와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4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열린 '간화선 담론' 프로그램의 모습.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선지식 · 자신 · 화두 믿음이 기본
일념 · 분발심으로 화두 참구해야
선지식에게 반드시 점검 '필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의심→의정→의단으로 타파돼야
기간 내에 맹렬히 참구해 끝내라
촬구들고 의심일어나면 일념 집중

믿음이 갖춰진 후에는 화두 간택을 받고 이를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게 진제 스님의 조언이다. 그러면서 화두 참구에 있어 촬구를 참구할 것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1천성인의 정액상(頂額上)의 일구를 투과해야 촬구가 되고 촬구의 세계를 투과해야 최고의 진리인 향상구(向上句)의 문이 열린다"면서 "진리의 세계는 논리와 변증으로 아는 것에 아니라 오직 실참실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화참선은 절집 스님들의 수행전유물이 아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과 국경을 떠나 누구라도 참선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간화선 수행이 인류 모두에게 소개돼 법계만유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원리와 실제'를 통해 화두 참구의 방법을 대중들에게 설했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첫 걸음에 촬구 의심을 들 것△촬구 의심이 의정과 의단으로 익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화두가 제대로 살펴져서 의심이 활발발하게 잡아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수불 스님은 "화두 참구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이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걸음에 촬구 의심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간화선 공부는 실패한다. 화두참구는 일주일, 길어도 한철을 정해놓고 맹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촬구를 들고 의심이 나면 일념만년으로 집중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했다. 스님은 "의심이 의정화되고 나아가 의단이 독로돼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 덩어리를 깨져나가길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앞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학자 7명을 비롯해 마틴 버첼러(프랑스), 이시이 슈도(일본), 지미 유(미국), 서문명 · 이사룡 · 이해도(중국) 등 저명한 해외학자들이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해외학자 및 외국인 40여 명은 24일부터 29일까지 백담사에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수행을 했으며, 29, 30일에는 봉암사 적명 스님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불교 유무형 문화 활성화 위해 총력"

제주성보문화원, 19일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

제주불교 100년의 앞날에 등불을 밝힐 제주성보문화원이 출범했다.

(사)제주성보문화원(원장 오홍식)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이 6월 1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이사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탄해 스님(제주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영훈 · 위성곤 국회의원, 신관홍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장 취임식에서 법주 수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성보문화원의 출범 의미는 첫째, 과거로부터 전해온 성보를 잘 가꾸고 전하는 것이고, 둘째 현 불교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출발"이라며 "성공의 열쇠는 도내 모든 종단들의 화합이며, 제주불심이 새 물결이 파도치도록 힘을 모아 제주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있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사)제주성보문화원은 6월 19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됐다.

이에 앞서 오홍식 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성보문화원이 제주불교의 중흥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이자, 불교문화 전승의 산실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성보문화원과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과 함께 전통사찰 및 유 · 무형 문화재 보존과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허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찬란했던 제주불교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문화창달을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취임에 앞서 창립총회에서는 제주성보문화원 이사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취지문 · 정관제정 · 이사 승인 및 감사 선임 · 2016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성보문화원은 △전통 문화유산 보호 관리 계승 및 발전 △문화유전 및 전통사찰 등 답사 조사 연구 강좌 교육 △불교문화의 대중화 △지역 및 국제간의 문화교류 추진 △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청소년 포교와 교화 사업 △각 사안별 부설연구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신성민 기자**

"고통받는 중생 구원하는 등불 되자"

대한불교청년회, 18~19일 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불교계 청년불자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18~19일 경남 하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창립 95주년 3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350여 명의 청년불자들은 '청년 만해선언'을 통해 △대립과 상호 반목의 갈등을 통합하는 보살행 실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시행 실천 △민족 숙원 통일성업을 위해 민족화합의 길 용맹정진 △사부대중이 평등하게 종단 꾸려나가는 씨앗 될 것 등을 결의했다.

전준호 대불청 중앙회장은 "어둠을 밝히는 길은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며 고통 또한 수반되지만 서슬 퍼런 일제 탄압 속에서도 결연하게 싸웠던 만해의 후예답게 당당히 맞서자"고 강조했다.

대불청은 대회기간 동안 불청대상 시상식 · 대등놀이 한마당 등을 진행하고, 만해 스님이 은거하며 비밀결사단체 만당을 조직해 활동했던 다솔사를 참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랑의교회 사건 끝까지 진상 밝힐 것"

종자연, 21일 기자회견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6월 21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본 행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김형남 종자연 운영위원장은 "광장 · 도로 등 공물이 특정종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공익성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관련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규명하고, 신축과정서 실체적 위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 또 점용허가 관련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광서 대표는 사랑의교회 사건에 대해 '종교의 권력화 문제'라 규정하고, "법과 종교가 야합하고, 종교가 권력화 되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확히 직시, 규명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 제2차 공개강좌 주제 : 고통 해탈법
일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제3차 공개강좌 주제 : 석가를 품은 53견
일시 : 2016년 10월 31일 (월) 오후 2시

• 제4차 공개강좌 주제 : 평온한 삶
일시 : 2016년 12월 30일 (금) 오후 2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각 회차별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